

2022년 성별 임금 격차 상장법인 30.7%, 공공기관 25.2%

□ 여성가족부(장관 김현숙)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*에 따라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
*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제3항 :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,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.

○ 이번 조사는 '22년 기준 '전자공시시스템(DART)'에 제출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와 '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(ALIO)'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.

* '20년에는 공공기관 대상 시범 조사 결과 발표, '21년부터는 상장법인으로 조사 대상 확대

□ 2022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,716개 상장법인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조사한 결과,

○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* 은 8,678만원, 여성 1인당 평균임금**은 6,015만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 임금 격차***는 30.7%로 나타났다.

* 남성 1인당 평균임금 : 상장법인 전체 남성 연간급여총액 / 상장법인 전체 남성 직원수

** 여성 1인당 평균임금 : 상장법인 전체 여성 연간급여총액 / 상장법인 전체 여성 직원수

*** 성별임금격차 산정 방식 : $\{1 - (\text{여성 1인당 평균임금(백만원)} / \text{남성 1인당 평균임금(백만원)})\} * 100(\%)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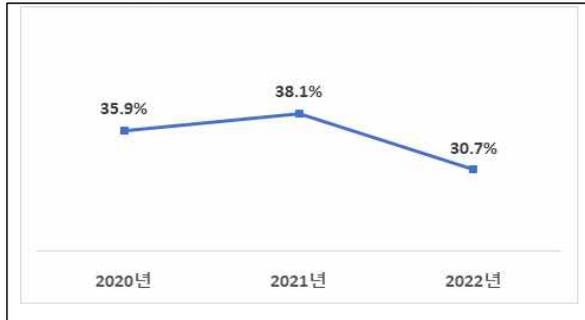
※ 본 조사의 1인당 평균임금은 고용형태, 직무·직급, 근속연수, 근로시간 등을 통제하지 않은 수치임

-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 대비 7.4%p(퍼센트포인트) 축소되었으며, '19년 이래 상장법인의 남녀 평균 임금이 모두 대체로 상승해 왔고 여성평균 임금의 증가폭*이 더 커,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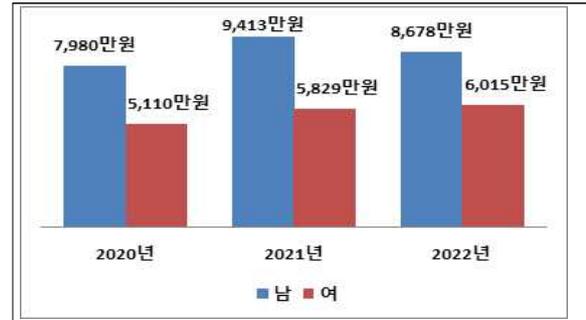
※ 성별임금격차 : ('19) 36.7% → ('20) 35.9% → ('21) 38.1% → ('22) 30.7%

* '19년 대비 '22년 기준, 남성 11.7%, 여성 22.3%

<상장법인 전체 성별 임금격차>



<상장법인 성별 임금 현황>



- 또한, 전체 상장법인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1.9년,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.9년으로, 성별 근속연수 격차*는 25.1%로 조사되었으며, 그 격차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성별근속연수격차 산정 방식={1-(여성 평균근속연수(년)/남성 평균근속연수(년))}*100(%)

<상장법인 성별 평균 근속연수 변화 추이('20-'22)>

구분	기업수 (개)	남성 근속연수 (년)	여성 근속연수 (년)	성별근속연수격차 (%)
'20	2,149	12.2	8.2	32.6
'21	2,353	12.0	8.3	31.2
'22	2,716	11.9	8.9	25.1

<상장법인 성별근속연수격차(%)>



- 아울러, 성별 근속연수 격차와 성별 임금 격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,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작을수록 성별 임금 격차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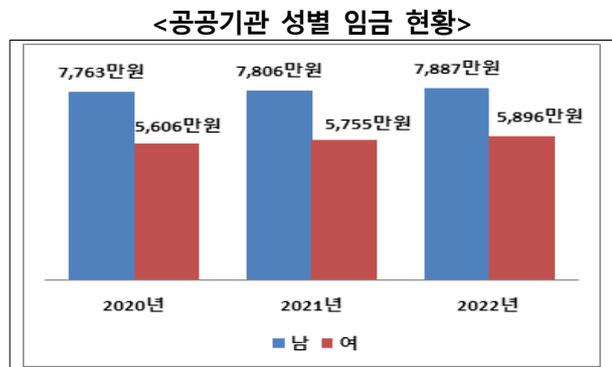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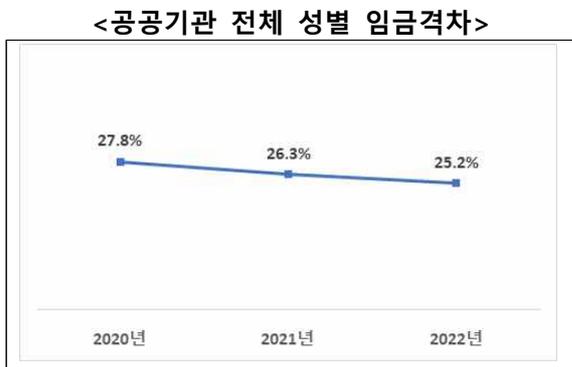
<'22년 성별 근속연수 격차별 기업 및 성별 임금 격차>

구분	기업수(개)	임금 격차(%)
남성 근속연수>여성 근속연수	50%이상	43.6
	30%이상~50%미만	40.4
	0%초과~30%미만	26.5

- 산업별로 살펴보면,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산업은 예술, 스포츠, 여가 관련 서비스업(20.1%), 숙박 및 음식점업(22.9%), 교육서비스업(23.1%),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26.0%) 순이며,
 -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농업, 임업 및 어업(43.8%), 운수 및 창고업(43.0%), 도매 및 소매업(41.9%), 건설업(40.4%) 순으로 나타났다.
 - * 산업별 기업 수 5개 미만 제외

□ 2022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61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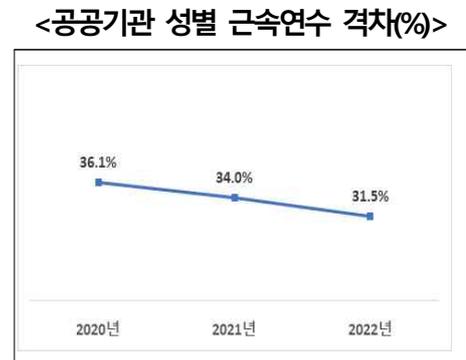
-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,887만원,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,896만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5.2%이며 전년 대비 1.1%p(퍼센트포인트) 감소하였다.



- 또한,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.9년,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9.5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1.5%로 나타났으며,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.

<공공기관 성별 평균 근속연수 변화 추이('20-'22)>

구분	기업수(개)	남성 근속연수(년)	여성 근속연수(년)	성별근속연수격차(%)
'20	369	13.8	8.8	36.1
'21	370	13.9	9.2	34.0
'22	361	13.9	9.5	31.5



- 자료를 분석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연구위원은 “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, 성별 임금 격차와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며, 이는 여성근로자 비중과 평균 근속기간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.”라고 말했다.
- 여성가족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,
 -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인사담당자(HR)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기업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 - 또한,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와 가족친화인증제 지속 추진 등을 통하여 일·생활 균형 문화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.
-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성별임금 격차의 주요 요인인 근속연수 격차 해소를 위해 경력단절 예방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, 미래유망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상장법인 산업별·성별 임금 및 근속연수 격차('22년)

담당 부서	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	책임자	과 장	조선경 (02-2100-6191)
		담당자	사무관	임성근 (02-2100-6197)
			주무관	이서영 (02-2100-6196)



(순서: 기업규모순, 단위: 개, %, 백만원, 년)

산업	기업수 (개)	여성 근로자 비중 (%)	임금 현황(백만원)			근속연수(년)		
			남성	여성	격차(%)	남성	여성	격차(%)
전체	2,716	26.6	86.8	60.2	30.7	11.9	8.9	25.1
제조업	1,582	19.9	86.7	62.6	27.7	12.3	8.7	29.3
정보통신업	363	34.4	87.7	56.9	35.1	10.4	6.8	34.7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203	25.2	81.3	51.8	36.3	8.6	5.4	37.9
도매 및 소매업	176	48.5	63.5	36.9	41.9	9.7	7.8	19.5
금융 및 보험업	157	48.0	136.5	87.2	36.1	13.6	12.8	6.3
건설업	72	12.7	76.7	45.7	40.4	11.0	6.3	42.3
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32	17.6	92.1	68.2	26.0	15.2	11.5	23.9
운수 및 창고업	28	27.7	82.9	47.3	43.0	12.8	11.7	8.8
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28	35.9	43.0	29.5	31.4	8.3	4.2	49.6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27	41.1	61.5	49.1	20.1	11.6	10.6	9.0
부동산업	14	27.4	59.8	38.4	35.8	4.8	3.9	18.0
교육 서비스업	13	66.2	45.0	34.6	23.1	7.0	6.3	10.3
숙박 및 음식점업	9	44.5	56.0	43.2	22.9	10.3	8.4	19.2
농업, 임업 및 어업	5	24.7	69.1	38.8	43.8	8.4	7.7	7.8
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	4	22.2	72.5	33.4	53.9	12.9	6.3	51.2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2	45.6	61.6	51.3	16.6	6.1	9.7	-58.5
광업	1	16.3	50.4	35.5	29.5	7.1	4.2	41.6